

금리 인하 깜빡이 컸는데 집 값 '꿈틀'

금리인하 깜빡이를 켜고 나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이 다시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인하를 향한 문을 열긴 했는데 이번에는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이 눈에 밟히는 상황이었다. 금리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려 있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자칫 자극될 소지가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시사 발언으로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으나 시중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제9주년 한은 창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에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오던 이 총재가 필요할 경우 금리인하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화한 것이다.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생긴 것은 경기 하강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금리인하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수출과 투자가 역주행하는 등 한국 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뒷걸음질치며 1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더니 4월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적자를 냈다. 지난달 수출액도 전년 대비 9.4% 줄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경기 추세를 보면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다시 낮출

경기 하강 장기화 조짐...한은, 금리인하 압박 커져 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 "금융불균형 우려 등으로 금리인하 빨라야 4분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다면 경기둔화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거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결국 금리인하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런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데 문제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강남구 집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올랐다는 민간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금리인하가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더 풀려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여간 여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최근 주춤해온 가계 및 중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빚은 지난 1분기 기준 154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금리인하=경기부양 공식이 예전만큼 잘 통하지 않는 점도 통화정책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요인이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한 것은 시중에 돈이 널 풀렸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로 비유했던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정책효과가 내려면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할 텐데 지난 2017년 11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에서 단 두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은으로서 인하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금리 수준도 완화된다는 얘이기도 하다. 이 총재도 현재의 연 1.75%의 금리 수준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여러차례 진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기지표가 지금보다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몰리면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

다. 뚜렷해지고 있는 경기 둔화세와 그에 따른 금리인하 압박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금리인하에 나서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2분기 이후의 국내 경기지표 추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야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금통위는 7월과 8월, 10월, 11월 등 네차례 남았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불균형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야 4분기가 될 것"이라며 "연준이 실제 금리인하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한은도 미·중 무역분쟁 경과에 따른 성장 전망,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정책기조를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뉴스스



LG전자 시그니처 북유럽 출시

LG전자가 13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아스트룸 피어리 현대미술관(Astrup Fearnley Museet)에서 현지 거래사, 기자,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LG 시그니처 출시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가 13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아스트룸 피어리 현대미술관(Astrup Fearnley Museet)에서 현지 거래사, 기자,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LG 시그니처 출시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를 살펴보고 있다

5년 뒤 7000억 시장...왜 '밀키트'인가

업계 올해 시장 400억원 인스턴트와는 다소 달라 양념까지 재료 모두 포함 1인가구·맛별이엔기



400억원에서 7000억원, 유통업체가 5년 뒤인 2024년에 현재보다 2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이 있다. 바로 '밀키트(Meal Kit)'다. 직역하면 '밥 조리 세트'. 인스턴트 음식에 가까운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과는 다소 다르다. 하나의 완전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게 각종 식재료 정량이 들어있고 양념장도 함께 있다. 이것들을 넣고 끓이거나 삶거나 데우는 식으로 간단히 조리만 하면 된다.

밀키트 시장은 2016년 닥터키친·프레시지 등 스타트업이 열었다. 그해부터 이듬해까지 동원푸드·한국야쿠르트·GS리테일 등이 차례로 뛰어들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200억여원까지 성장했다. 올해는 여기서 두 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이마트는 자체 식음료 브랜드 '피코크'로 밀키트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식품업체인 CJ제일제당은 앞서 지난 4월 밀키트 시장 진출을 선언 '룩킷'을 내놓고 있다.

밀키트 메뉴는 인스턴트 음식과는 확실히 구분될 정도로 화려하다. 이마트에는 레드와인소스 스테이크와 밀푼유 나베가 있고, CJ에는 새우주꾸미삼겹살과 맑은 민태국탕이, 한국야쿠르트에는 서양식 소분고기 전골이 있다. 프레시지에는 최현석 스테이크 세트가 있고, 동원푸드에는 차돌누들떡볶이가 있다. 가격은 1만원 이하에서 2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웬만한 전문 식당에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이유현(27)씨는 "밀키트와 똑같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을 봐야 하고, 재료를 손질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한다. 남은 식재료는 버리기 일쑤다.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밀키트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1인 가구와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 증가는 밀키트 시장 확장의 가장 큰 동력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소량의 손질된 식재료를 팔고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남아서 버린다는 얘기가 많다"며 "버릴 일이 없는 밀키트는 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유통업체는 날씨가 더워질수록 밀키트 판매량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스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 쌀, 수도권 공략

1천억 판매 목표

전남도는 2개월 동안 수도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릴레이 홍보·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전국 릴레이 홍보·마케팅 행사는 전남 우수 브랜드 쌀 판매액 100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4~5월 부산·양산·김해 등 영남권에 이어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은 890억 원이었다.

그동안 제주·영남권 홍보·마케팅 행사에선 현지 주요 불우업체, 소비자들의 구매의욕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남 쌀 판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도권 전남 10대 브랜드 쌀 릴레이 홍보·마케팅 행사에는 올해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된 10개 시군 경영체가 참여했다.

전남쌀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쌀 품종 및 전남산 양파 1방(3.0kg)씩을 증정품으로 제공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홍보 및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경환 기자

제 863회차 당첨결과 (2019년 6월 15일 추첨)

16 21 28 35 39 43 + 12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853,357,322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4	52,014,32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42	1,630,22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4,94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53,09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후유연인 경우 익명당첨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